

채승훈의 〈햄릿 머신〉

씨어터 제로 · 창파 〈햄릿머신〉

글/서명수(연극평론가, 중앙대 교수)

〈연극이 죽어가고 있다. 대학로에 공연은 많으나 작품이 없고, 사람은 더욱 붐비지만 관객은 없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제작역간-사실 이것이 연극 예술의 본질 아닌가?〉-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씨어터 제로 · 창파의 〈햄릿머신〉(하이네 뮐러 작, 채승훈 연출)

그냥 방치하고 있고, 연극인들 또한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나름대로의 정책도 개진하지 않고 있다. 빈사 상태의 대학로는 이 모든 고뇌를 홀로 짊어진 채 생존을 위해 끼니를 때우듯이 연극을 한다.

어쩌면 이미지로 가득찬 시대, 부재의 예술이 판을 치는 시대에, 현존의 예술인 연극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되면, 예술은 오직 오락의 껍데기만 쓰고, 부의 생산이나 매달리는 하나의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연극은 다른 모든 장르의 예술에 있어서 그 예술적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씨어터 제로'에서 공연 중인 채승훈의 〈햄릿 머신〉은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실험에 대한 필요성, 즉 배우의 신체와 그 신체의 움직임과 소리와 같은, 가장 현존적이고 원형적인 작업에 대한 실험의 필요성이다.

93년 초연되었던 〈햄릿 머신〉은 당시에도 '새로운 형식의 진보적인 연극'이라는 평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물론 평단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작품의 본질에도달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던 신체의 노출과 같은 파격적인 장면은 자제되었고, 전반적으로 말 언어에 의한 표현 대신 신체 언어 또는 소리(말로 분절되지 않은)와 같은 행위예술적인 표현이 더 강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혹자는 이번 공연이 더 난해하다고 말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예술이라는 표현 형식의 낯설음 때문이지, 오히려 주제의 차원에 있어서는 관객이 쉽게 원작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합목적적 역사관에 대한 비이

성적 역사관, 지성적 세계관에 대한 야성적 세계관, 도식적 사유에 대한 다양함,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저항 등과 같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햄릿 머신〉을 채승훈은 우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대 위에서 남성과 지식인을 환유하고 있는 햄릿은 여성과 반지성(=야성)을 환유하는 오피리어를 강간하고 살해함으로써, 남성과 지식인의 폭력성을 은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숙부와 몸을 섞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번민하고 저주 섞인 말을 던지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햄릿을 통해, 이들이 은유하는 부패한 역사에 대한 남성이면서 지식인의 무력함도 동시에 은유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도 이들의 정사 장면을 무대 안쪽 중앙의 높은 곳에 둬으로써, 이들과 햄릿과의 거리, 권력의 차이를 환유하면서, 나아가 이들에 대한 햄릿의 무력함이 강조되고 있다. 또 여기에 사실적이기보다는 계의적인 형식을 덧씌움으로써, 남성과 지식인의 폭력성과 동시에 역사의 변혁에 대한 이들의 무력함을 보편화하고, 성의 문제로부터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철중 씨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모든 배우들의 앙상블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관객을 더 강렬한 광기와 제의적인 힘으로 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 장면을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여 작품 전체가 의도하였던 경악이 약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여하튼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또 그래서 더욱 더 실험이 필요한 이 시기에, 공식적인 첫 작품 〈매춘 I〉부터 지금까지 폭력, 광기, 잔혹, 경악의 미학을 추구해 온 채승훈의 실험 정신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미학은 모두 실험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험은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어나가는 태도와 정신, 일회적이고 흥내만 내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순수한 작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